

노마스크·턱스크 '실종된 방역의식'...순식간에 뚝뚝했다

탁구클럽 집단 감염 파문에도 다른 클럽들 방역 준수 안한 채 운동 유일한 생활속 백신인데...스크린골프장·카페 등 마스크 제대로 안써 타인 배려 의식 갖춰야...방역당국은 제도기간 핑계 관리 소홀

광주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느슨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섯이 카페, 체육시설 등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코는 내놓고 입만 가리는 '입스크', 턱에 걸친 '턱스크' 쪽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업무들도 손님을 쫓아낼 수 없지 않느냐며 준수해달라고 권고하지 않는데다, 방역 당국은 제도 기간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 시그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10시30분께 찾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실내 탁구연습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10명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북구 동광주 탁구클럽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이곳 탁구장 회원 20여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이들은 땀을 뒀아내며 탁구채를 휘둘렀고 마스크 없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

탁구장은 실내체육시설로, 사업주의 관리 하에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찾는 회원들도 일부만 발열 체크를 했고 업주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21일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공간이 아닌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찾기 힘들었다.

비슷한 시각, 서구 마북동 스크린골프장

에서도 마스크를 쓴 손님이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 놓인 체온계와 출입명부는 지자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갖춰 놓았을 뿐 작성을 권하는 직원도 없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알리는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외 골프연습장 상황은 더 심했다. 골프연습장은 야외체육시설로 분류, 집합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을 따르는 이용객을 찾기 힘들었다. 이날 찾은 골프연습장 1층 31개 중 28개 타석을 차지한 골퍼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은 3명이 전부였다.

카페와 식당 등에서도 마스크로 입만 가리거나 턱에 걸친 시민들로 가득했다.

서구 상무지구 내 한 식당은 코를 노출한 '입스크' 상태로 식판에 반찬을 담은 손님들로 넘쳐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일대 카페에서도 온전하게 마스크를 쓴 손님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애초 제도기간을 10월 12일까지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탓에 '있으나마나한' 생색내기성 행정명령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7일 오전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탁구장 회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탁구를 치고 있다(위).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섭게 재확산...지역 교육현장 초긴장

광주 12명·전남 3명 학생 확진 교사 확진에 부러부러 원격수업 긴급역학조사 등 감염 차단 총력

코로나19가 무서운 재확산을 보이면서 광주·전남 교육현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확진자와 관련 긴급역학조사와 함께 원격수업 전환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을 전후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현장 교사와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 폐쇄와 긴급 역학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 두암중 여교사 A씨는 북구 성림침례교회 신자로, 해당 교회 집단 감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학교를 곧바로 폐쇄 조치하고, 교직원 40여 명은 검체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와 함께 재택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화순초 남교사 B씨가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282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B씨는 확진 판정 1주일 전인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 천척집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당초 학년당 2개 학급만 등교 수업하고 4개 학급은 원격수업하는 방식으로 3분의 1 제한등교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사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러부러 전교생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1000명이 넘는 교직원, 학생, 유치원생 등에 대한 긴급 역학조사도 진행됐다.

학습지 교사와 광화문집회, 물놀이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학생 감염자들도 늘고 있다.

이날 현재 광주·전남 학생 확진자는 광주가 12명, 전남이 3명으로 합쳐서 15명에 이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11명(광주 9, 전남 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는 광주 3명, 전남 1명 등 총 4명이다.

초등생 자매와 남매, 중학생 오빠와 초등생 여동생 등 형제·자매기간 감염이 여러 건에 이르고, 감염 경로도 '송파 60번', 유흥주점, 조부모와의 식사 등 다양하다. 최근엔 광화문 집회까지 더해졌다. 8월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대 대학본부 교직원의 중학생 자녀 역시 바이러스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와 함께 나주에 위치한 전남외국어고에서는 외부강사인 대학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의 들은 학생 등 30여 명이 역학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순천지역 교회와 헬스장,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현지 교사 등 일부 접촉자는 음성과 양성 경계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 감염에 따른 집단 발병은 아직까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예고 없이 찾아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선 마스크가 답이고, 개인과 학교 차원의 빈틈 없는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을 9월11일까지 연장한다. 고3의 경우 입시의 중요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등교수업을 진행하지만, 방과후수업은 운영하지 않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학급당 10인 이내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집합금지 대상 지하 목욕탕·멀티방 포함...지상 시설은 제외?

광주시 허술한 방역지침 혼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의 대응력이 미흡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허술한 방역 지침으로 인한 혼선과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광주시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로 발표한 집합금지 적용대상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집합금지 적용대상을 기존 12개에서 27개로 늘렸다. 추가 대상에는 지하에 위치한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이 포함됐는데, 지상 시설은 제외했다.

지하 시설의 환기 여부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지만 목욕탕·사우

나, DVD 방이 지상에 있더라도 대부분 밀폐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 발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지상 DVD방이 문을 열어 환기가 잘 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상 목욕탕은 문을 열어놓고 지하 목욕탕은 밀폐돼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광주시 입장도 헷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지하에 사업장을 둔 한 시민은 "지상에 있는 사우나와 목욕탕이라고 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방역당국의 늦은 동선 파악 문제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성림침례교회 확진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최대 10일 간 지역사회 곳곳을 활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전수조사가 지난 25일 이뤄지면서 동선 파악은 커녕, 이들과 밀접 접촉한 시민들, 접촉자 동선은 언제 파

악될 지 미지수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동선 공개 문제도 행정의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당초 이름, 성별은 물론 확진자가 머무르는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하는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오다 최근 인권위 권고를 들어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광주시는 정보를 공개해오다 들은 비공개 방침으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검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선,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유흥주점별 관련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방역 방침을 바꿨다는 의혹도 흘러나온다. 시민들은 "정확한 동선 정보도, 접촉자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니 어딜가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비공개 결정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